

職業能力開發研究  
 第20卷(3), 2017. 11. pp. 65~93  
 © 韓國職業能力開發院

## 학교선택제가 학생 특성별 학교 분리에 미치는 영향\*

김 혜 원\*\*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배정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거주지 분리, 학교 선택과 배정 방식 등이 학교 배정 결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다. 평준화 지역에서는 학업성적에 따른 학교 분리는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거주지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학교 분리는 작동한다.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학업성적에 따른 학교 분리가 강하게 나타나며 거주지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학교 분리도 강하게 작동한다. 평준화제도 하에서 학교선택제 요소가 강화되면 학업성적에 따른 학교 분리가 나타난다. 학교선택제의 강화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지역 학생들의 진학을 상위 학교 배정을 늘리는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거주지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고 가구소득수준이 낮을 때 진학을 하위 학교 배정을 높이는 부정적 효과도 동시에 낳는다.

- 주제어: 학교선택제, 학교 분리, 고교평준화, 거주지 분리

투고일: 2017년 7월 13일, 심사일: 2017년 9월 22일, 게재확정일: 2017년 10월 10일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5A2A03034731)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hwkim@knue.ac.kr)

## I. 서론

우리나라 도시에서 사회경제적 거주지 분리 현상이 강화되고 이와 관련된 교육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최은영, 2004). 개인적인 차원에서 거주지 간의 교육 격차를 우회하기 위해 거주지 이동을 선택하는 양상이 나타나며 도시정책적 차원에서 거주지의 분리 현상 자체를 완화하는 정책이 시행되기도 한다. 교육정책적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초중등교육에서 거주지의 근접성에 따른 학교 배정이 시행된다. 거주지의 사회경제적 수준 격차가 심화되면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교육 성과가 크게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수준의 지역 내 학교에 대한 공식적, 비공식적 지출이 줄어들기 때문이거나 학업성취동기와 성취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모이면서 동료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거나 그 외 다양한 이유로 나타난다.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의 지역에서 집중되는 낮은 수준의 교육 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교육정책적 대응방안은 학교선택제이다. 학교선택제는 본인의 거주지에 있는 낮은 교육적 성과의 학교에 배정되지 않고 거주지를 벗어나 스스로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차터스쿨(charter school), 교육비 지불보증제도(school voucher), 자유등록제(open enrollment) 등이 제안되고 실험되었으며 학교선택제는 유럽에서도 확산되었다. 하지만 학교선택제의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선택의 정도가 강화되면 사회경제적 지위 하위 지역의 불평등 해소라는 애초의 목표를 넘어서서 학업성적과 사회계층에 따른 학교 분리 현상을 강화하는 역효과를 낳는 위험이 존재한다(정광호, 2010; 이성호, 2012).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주거지 근접성에 따라 학교를 배정하고 있으며 일반고의 경우 평준화정책에 따라 주거지 근접성에 기반한 학교 배정 제도도 도시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시행되었으며 농촌을 중심으로 극단적인 학교선택제도인 비평준화가 시행되었다. 평준화제도의 학교배정에서 주거지 근접성에 추가하여 학생의 학교 선택 요인을 도입하는 변화가 광역시를 중심으로 실시되었고 2009년에는 서

울에서도 이러한 요인이 학교배정에 도입되었다. 다른 한편 특목고의 수가 확대되고 2010년에는 자율형 사립고 정책이 실시되면서 도시 내 학교선택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주거지 분리와 교육격차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주지간 교육의 격차의 실태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었다. 이에 비해 교육정책과 제도가 거주지간 교육 격차와 학교분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없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공백을 메꾸는 의의가 있다. 또한 최근 10여년 사이 특목고의 확대에 부응하여 이와 관련된 연구는 이루어졌으나 영향 받는 학생의 수가 특목고에 비해 훨씬 많은 일반고의 경우 학교선택제의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백에 대응한 연구로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평준화 제도와 비평준화 제도에 따라 일반고의 성적 및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교 분리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특히 거주지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학교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한다. 또한 평준화 제도 내에 학생의 선택권을 얼마나 반영하느냐에 따라 학생의 성적에 따른 학교분리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교 분리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검토한다.

연구 방법 측면에서는 첫째, 평준화 제도 내의 학교 선택의 강도 차이를 분석에 포함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학교선택 제도 연구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기여가 있다. 학교 선택제는 선지망 후배정의 형태인데 학생 희망을 얼마나 반영하는지에 따라 선택의 정도를 구분할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이 선택하는 학교의 차이를 대표할 수 있는 변수를 발굴하고 이를 분석에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학교 선택 연구에 기여한다. 교육고용패널자료에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입학률에 대한 정보가 있다. 인서울 대학으로 대표되는 진학 우선 순위를 반영하여 일반고등학교 서열에 대한 변수를 발굴하고 이를 분석에 활용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절에서는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특히 국내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진 관련 실증 연구를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학교 선택의 정도가 강화될 경우 다양한 기준에 의한 학교 분리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학교 선택의 제도적 실태를 살펴본다. 제4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를 설명하고 분석 방법을 제시한다. 제5절에서는 분석 모형에 따른 추정결과를 제시한다. 제6절은 요약을 담고 있다.

## II. 선행 연구 검토

학교선택제에 대한 기존의 실증 연구는 학교선택제로 인해 계층간 학교 분리와 학업성취수준간 학교 분리가 심화될 것인지 여부와 학교선택제로 인해 학교만족도와 학업성취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두 가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전자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기존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정숙 외(2010)에서는 교육개발원에서 만든 한국교육종단연구 1, 2, 3차 자료를 이용하여 중3 학부모들의 고등학교 선택 동기를 분석하였다. 분석 모형은 고등학교 선택 동기에 대한 질문을 종속변수로 하여 이를 결정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로짓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고 기대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학생의 학업성취수준이 높고 학업자기개념이 확고할수록 학습분위기를 중시한다. 이에 반해 부모의 문화자본이 낮고 교육적 지원이 적고 기대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통학거리와 교통을 중시한다.<sup>1)</sup> 김정숙 외(2010)에서는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고교선택제가 확대 실시될 경우 계층에 따른 학교 분리 현상이 심화될 개연성이 크다고 예측하고 있다.

위권일 외(2011)에 따르면 고학력 부모, 고소득 가구, 높은 학업성적 학생일수록 학교선택에서 명문대 진학 성적이나 학습 분위기를 학교 선택의 주요 고려 요인으로 꼽는다. 고소득층이 교육의 질과 진학결과를 중시하는데 비해 저소득층은 거리나 교통을 중시한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이럴 경우 학교선택제는 학교의 서열화로 이어질 수 있다.

변수용 외(2012)에서는 학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에 대해 서울교육종단연구 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했다. 학교 선택 유형은 일반고 임의 배정과 일반고 지망 배정 그리고 자사고와 특목고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가정배경과 학생 특성이 학교 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다항로짓 모형을 이용해 선택의 영향요인을 분

1) 평준화 지역의 설문에 대한 응답은 잠재적인 선택 동기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비 평준화 지역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진학 가능성'을 제외하고 분석하여 잠재적인 선택 동기 측면에 집중하여 분석하였다. 김정숙 외(2010), p. 79 및 각주 2), 3) 참조.

석하였다.

기존의 연구가 선택 동기를 분석한데 비해 변수용 외(2012)에서는 실제 선택의 결과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반고 임의배정을 준거집단으로 했을 때 일반고 지망배정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은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지망배정과 임의배정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자사고와 특목고의 경우에는 일반고 배정과 유의한 차이들이 확인되는데 주로 특목고를 선택한 이들이 가구 소득 수준이 높고 중학교 3학년 시점에서의 학업성취가 높다는 것이다.

김정숙 외(2010), 위권일 외(2011)의 연구는 선택 동기를 기준으로 분석할 경우 학교선택제는 계층분리와 학업성취수준간 분리를 가져온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이에 비해 실제 선택이 이루어진 결과에 기초하여 분석한 변수용 외(2012)에 따르면 특목고와 자사고를 통한 학교선택은 계층간 학교 분리와 학업성취수준별 분리 현상을 가속화하지만 일반고 사이의 고교선택제는 이러한 효과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거주지별 교육 격차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데 이와 관련해 다수의 연구들이 이루어진 바 있다. 김광혁(2008)에서는 청소년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지역사회 자본이 높을수록 아동의 학업성취도가 높고 사회자본의 증가율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의 증가율 역시 빨리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김희운·백학영(2010)의 연구는 영구임대주택이라는 주거환경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들은 『서울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영구임대주택 거주 기간이 길수록 학업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부모의 교육적 관여가 많을수록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성배(2004)에서는 목포 지역의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교육 격차를 분석하면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지역간 교육 성과 격차가 커지는데 그 이유는 교육환경의 차이로 설명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비교적 전학이 자유로운 초중학교 단계에서의 학생의 학교 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태중(2007)에서는 지역 간 학업성취도 격차를 분석하고 이를 학생 이동으로 설명하고 있다. 윤형호 외(2008)에서는 학업능력과 특목고 효과를 통제한 후 서울시 자치구별 진학률을 비교, 분석하면 중1때의 구별 학력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 소득보다는 자치구 교육여건에 의한 진학률 차이가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상위학교 진학률 차이가 자치구 효과에 크게 영향을 받든다는 것은 많은 학령기(10~14세) 인구가 대학진학을 위하여 교육여건이 양호한 서초, 강남구로 이동하는 것에 의해 간접적으로 증명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첫째, 평준화 제도 내의 학교 선택의 강도의 차이가 학교 분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없었다. 본 연구는 학교 선택 제도의 미시적인 차이가 학교 분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처음으로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성적우수자들을 주로 선발하는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 등의 확대 정책과 관련한 학교선택제의 효과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평준화제도 내에서의 학교 선택의 강화에 대해서는 학교 분리와 관련된 연구가 많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와 관련된 공백을 메꾸고자 한다. 둘째, 기존의 평준화 제도 실증 연구가 비평준화 제도와 비교한 학업 성취도의 차이를 중심으로 연구했던데 비해서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적 및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교 분리의 관점에서 평준화와 비평준화의 차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이가 있다.

### Ⅲ. 이론적 검토와 제도적 맥락

거주지는 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거주지가 교육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에 대한 연구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요인들로 분해할 수 있다. 첫 번째, 지역사회의 성인들이 학생들에게 역할모델(role model)을 제시할 수 있다.<sup>2)</sup> 지역 내 성인들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고 성실하게 일하는 성인을 접촉할 기회가 적을 경우 학생들은 미래의 자신의 모습에 대한 긍정적인 상을 가지기 어렵다. 게다가 주변에서 교육을 통해 성공한 모습을 접하지 못할 경우 미래의 성공에 교육이 미치는 효과에 대해 충분한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된다.

둘째, 거주지는 교육 기관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교육 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거주지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 경우 학교의 물적, 인적 자원이 풍부해질 수 있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집단이 밀집한 거주지역에서 학교는 많은 교사들이 이들을 학교로 옮기기를 희망하며 결과적으로 좋은 교사들을 유치할 수 있다. 또한 학부모들

---

2) 김경근 외(2005) 참조

이 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경우 학부모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학교가 가용한 자원이 늘어날 수 있다. 또한 학부모들이 잘 조직되어 공식적,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청에 요구를 제기할 경우 교육청의 자원 배분에 있어서 이들 학교가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셋째, 거주지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물질, 인적 자원만이 아니라 학교의 보이지 않는 노력 수준에 영향을 미쳐 교육 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교육에 관심을 가지면서 또한 학교의 교육 성과에 발언권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은 중산층 이상의 부모들이다. 이들은 학교 학부모회나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교사들과의 비공식적 접촉을 통해서 학교 교육의 실태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평가하며 학교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러한 학부모들의 활동은 학교 및 교사의 교육적 노력에 압박 요인을 작용하여 교육 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넷째, 학교 내의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교육적 성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강창희 외(2010)에서 확인된 것처럼 학급 내에서 우수한 학생들은 주변의 학생들에게 학업 성취에 있어서 긍정적 외부효과를 미칠 수 있고 열등한 학생들은 주변의 학생들에게 부정적 외부효과를 미칠 수 있다. 만약 우수한 학생들만으로 구성된 학급은 시너지를 발휘하여 전체 학생의 학업성취를 높일 수 있는데 비해서 열등한 학생들로 구성된 학급은 서로 부정적 영향을 미쳐 학업성취를 낮추게 된다.

이처럼 거주지는 교육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학교 배정은 거주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거주지 내의 주민의 사회경제적 구성의 다양성이 줄어들고 유사한 이들이 모이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국가 전체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교육 영역에서도 나타나게 될 것이고 거주지에 따른 학교 분리가 심화될 것이다.

고등학교 단위에서의 학교 분리는 이러한 거주지의 양극화 경향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학생이 학교에 배정되는 규칙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초등학교, 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는 학생의 적극적인 선택과 이와 관련하여 학업성적이 감안된 학교 배정이라는 요소가 존재한다. 제도가 상대적으로 복잡한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배정 제도 자체가 학업성적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한 학교 분리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교배정 제도에서 일차적인 차이는 평준화와 비평준화 제도의 차이이다. 학업성적으로 서열화된 가치 체계 하에서 학교가 선발권을 갖는 비평준화제도는 학업성적에 따른 학교 분리가 극대화되며 학업성적과 관련된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교 분리도 나타난다. 하지만 어떠한 지역에 사느냐는 학교 배정에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미친다.

이에 비해 평준화는 일정 학력 이상의 학생들을 지역 내 고교에 무작위 배정하는 제도이며 학교의 선발권이 없으므로 학업성적에 따른 학교 분리는 극소화된다. 하지만 통학거리에 의한 제약과 우수 학교의 지역적 분포의 불균등성이 결합할 경우 거주지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학교 분리가 극대화된다. 소득 수준은 거주지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분리와 관련되는 한에서 학교 분리에 영향을 미친다(이주경, 2002; Epple & Romano, 1998).

평준화 제도는 지역 내 고등학교에 무작위 배정하는 제도로 출발했지만 점차 고등학교의 책무성 강화와 학생의 선택권 강화라는 정책 가치의 부상으로 학생이 희망 배정 학교를 지망하고 희망 학교를 고려하여 학교가 배정되는 제도로 변화하였다. 학생 선택 요소를 학교 배정에 반영함에 따라 무작위 배정에 따른 평준화 제도의 학교 분리 효과에 차별적인 영향이 가해진다.

첫째, 학업성적에 따른 학교 분리 현상이 강화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학 진학 성과가 우수한 학교에 배정되길 다수의 학생들이 희망하는데 내신 성적이 부분적으로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칠 경우 우수한 학생들은 주로 우수한 학교를 선택하게 되고 성적이 낮은 이들은 내신 성적의 불리함 때문에 대학 진학 성과가 우수한 학교를 덜 희망하게 된다. 이것은 학업성적에 따른 학교 분리 현상을 낳는다.

둘째, 학교선택제의 강화는 평준화제도 내에서 거주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교 분리 현상을 완화할 수도 있고 강화할 수도 있다. 한편으로 학교선택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거주지에서 가까운 학교에 배정하는 규칙이 적용되는데 학교선택제를 강화함에 따라 근거리 배정의 비율이 줄어들고 희망하는 학교를 우선하게 된다. 이에 따라 거주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교 분리는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학교선택제 강화로 거주지에 의한 학교 분리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지역에 있는 성적 우수 학생들이 대학 진학 성과가 우수한 다른 지역의, 특히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지역의 학교로 배정되는 경향이 강화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지역에 성적이 낮은 학교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대학 진학 하위 학교에 배정될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셋째, 소득 수준에 따른 학교 분리 현상은 어떻게 나타날지 명확하지 않다. 높은 소

득은 통학 거리에 따른 비용을 완화할 수 있으므로 소득에 따른 학교 분리 현상을 강화할 수 있다. 하지만 소득 수준과 거주지의 수준의 상관성이 높다는 점에서 학교 선택이 강화되어 거주지에 따른 분리가 약화된다면 소득 수준에 의한 분리가 약화될 수 있다.

이상의 이론적 검토를 배경으로 본 연구는 중학생의 고등학교 배정 제도의 차이가 학업성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교 분리 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학교 배정 제도 특히 평준화에서의 학교 배정 제도의 구체적인 모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초기의 평준화 제도는 학업성적을 고려하여 학군 내 학교들에 골고루 학생들이 배정되는 방식으로 운용되었으나 학교에 대한 선호가 존재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학교선택의 요소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도 단위 중소도시 규모의 평준화 지역에서는 일찍부터 지방학교를 감안하여 배정하는 제도가 정착되었으며 광역시의 경우 통학 거리를 감안하여 학군 내에서 지방을 받아 배정하되 채워지지 않는 학교의 경우 무작위 배정하는 방식이 활용되었다(김성식, 2009).

학군간 격차가 나타나고 선호 학교가 부각되는 반면 통학을 위한 교통 여건이 개선되면서 광역시 전체를 대상으로 선지원을 받는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2010년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울 단일학군으로 20%를 배정하는 소위 '고교선택제'를 시행하면서 고교선택제라는 명칭이 널리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다수의 광역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던 제도이다.<sup>3)</sup> 학교 선택이 강화된 이유는 첫째, 강제배정으로 인한 학교에 대한 낮은 애착심을 줄이고, 고등학교의 노력을 촉진하는 등 평준화의 문제점을 해소하며, 둘째, 도시 내의 거주지 분리 현상을 타개하고, 셋째, 좋은 학군 밀집 지역의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를 해결하며 넷째, 교통환경이 변화하여 통학 가능 영역이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백병부 외, 2012).

지역 교육청별로 학교 선택의 정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표 1>에서는 2009년 현재 시도별 학생 배정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 바 서울의 경우 학생이 서울 전체 학교에서 2개교를 지원하고 거주 지역 내 학교에서 2개교를 지원하면 1단계에서 20%를 추첨배정하고 이에 배정되지 않았을 경우 거주지 중심으로 40%를 배정한다. 60%의 배정 과정에서 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3단계에서 강제 배정을 하게 된다. 대전은 전

3) 서울에서의 학교선택제의 도입 과정에 대해서는 김학한(2011) 참조

체가 단일학군이고 우선 5개교를 지원한 뒤 60%를 이를 이용해 배정하고 나머지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으로 40%를 무작위 배정한다. 이에 비해 인천의 경우 100% 선지망을 고려한 배정을 하고 있고 대구의 경우는 40%를 선지망 배정을 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언급할 것은 비평준화지역에서의 평준화지역으로의 진학 문제이다. 현행 고입 전형에서는 평준화 지역 중학교에서 비평준화 지역 고등학교로의 진학도 허용하고 있고 비평준화 지역 중학교에서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로의 진학도 허용하고 있다.

<표 1> 시도별 학생 배정 방법

| 시·도 | 학군   | 학생배정방법   |
|-----|------|--|
| 서울  | 11   | · 3단계 선지원 추첨 배정<br>- 1단계: 서울 전체 학교에서 2개교 지원, 추첨배정(20%)<br>- 2단계: 거주지역내 학교에서 2개교 지원, 추첨배정(40%)<br>- 3단계: 통합학교군 내에서 추첨배정 |
| 부산  | 5    | · 3단계 선지원 추첨 배정<br>- 1차: 부산 전체 학교에서 2개교 지원, 추첨배정(40%)<br>- 2차: 거주지역내 학교에서 2개교 지원, 추첨배정(20%)<br>- 3차: 통합학군내 추첨배정        |
| 대구  | 2    | · 40%는 2개교 선지원 추첨배정, 60%는 추첨배정   |
| 인천  | 3(2) | · 학군내(+공동학군) 모든 학교 선지원 추첨배정  |
| 광주  | 1    | · 2단계 배정<br>- 선배정: 2개교 선지원 추첨배정(40%)<br>- 후배정: 5개교(우선순위없이) 선택 지리정보추첨배정(60%)  |
| 대전  | 1    | · 5개교 선지원으로 60% 배정, 지리정보추첨으로 40% 배정  |
| 울산  | 1    | · 2개교 선지원으로 일정비율 배정, 나머지는 추첨으로 배정<br>* 2009학년도 희망배정 40%이었음   |
| 경기  | 5    | · 1단계 5개교 선지원으로 50% 배정(안양 40%)<br>2단계 50%(안양 60%)는 학군내 구역별 모든 학교 선지원 추첨배정 (부천은 100% 선지원)                               |
| 충북  | 1    | · 5개교 선지원으로 일정비율 배정, 초과시 미달교에 임의배정   |
| 전북  | 3    | · 학군내 모든 학교 선지원 추첨 배정  |
| 전남  | 3    | · 학군내 모든 학교 선지원 추첨 배정  |
| 경남  | 4    | · 학군내 모든 학교 선지원 추첨 배정  |
| 제주  | 1    | · 5개교 선지원 석차등급별 비율로 추첨배정   |

출처 : 김성식(2009)

일부 지역에서는 비평준화지역 중학교 학생들에게 선택의 폭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 평준화 지역 내 중학교 출신들은 1, 2단계에서 원하는 지망학교를 쓰고 1단계에서 학군 내 배정을 받고 2단계에서 좀 더 좁은 구역 내에서 다시 배정을 받고 3단계에서 무작위로 배정되는데 비해서, 비평준화지역은 1단계에서 바로 3단계로 가는 규칙을 적용받는다. 이러한 선택의 제한은 비평준화지역에서 평준화지역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에 배정될 확률을 낮춘다.<sup>4)</sup>

본 연구는 일반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평준화 제도와 비평준화 제도 나아가 평준화 제도 내의 제도 차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수목적고 등을 불리는 학교에 대한 학교 선택 문제는 제외하고 있다. 학생에 의한 학교 선택이라는 관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일반고등학교에 앞서 전형이 이루어지고 학교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선발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sup>5)</sup>

## IV. 사용한 자료와 분석 모형

### 1. 사용한 자료

본 연구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만든 교육고용패널자료를 이용한다. 교육고용패널 조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교육경험과 진학, 진로, 직업세계로의 이행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04년에 시작되었고 동일한 표본을 1년 주기로 추적 조사하여 인적

4) 전라북도의 배정 규칙은 다음과 같다. “김제, 정읍, 무주, 고창 등 고교 비평준화지역 중 학생들도 고교 평준화 제도가 시행되는 지역인 수전주, 군산, 익산 학군의 고입 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전형에서 배정 대상자로 선발되면, 고교 평준화 지역 출신자와 마찬가지로 학군내배정(1단계)에서 자신이 선택한 5개 고등학교의 지망순위에 따라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군내배정(1단계)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출신 중학교가 학군 내에 없으므로 학생 수용 능력이 좋은 구역으로 배분 되어 구역내배정(2단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구역의 고등학교에 배정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http://satp.jbe.go.kr/jbd/bj/JbdBj04.jsp>(2016년 2월 12일 추출).

5) 고등학교 입학 전형은 전기 전형과 후기 전형으로 나뉘고 전기 전형은 외국어고, 과학고, 영재고, 자사고, 특성화고, 국제고, 예술고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학생들은 자신이 들어가고 싶은 학교를 지원하고 학교는 적합한 학생을 선발한다.

자원의 축적과 활용에 대한 패널자료를 구축해 왔다. 조사 대상자는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와 담임 교사 그리고 학교 행정가 등 다양하게 구성하여 학생으로부터 알 수 없는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된 관심을 갖는 것은 학교 배정 및 선택과 이와 관련된 제도적 요인의 영향 요인이다. 이에 따라 중학교 3학년 코호트의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한다. 이에 중학교 3학년 상태를 보여주는 제1차년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상태를 보여주는 제2차년도 자료를 주로 결합하되 제4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변수들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에서 특목고 등과 관련된 표본은 제외하였다.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지역에서 일반고의 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특목고 등의 전형이 미리 이루어진다. 전기전형에서 합격하지 못한 이들이 후기 전형에 응시하므로 특목고 등을 일반고와 비교하기 적절하지 않다. 실제 교육고용패널자료에서 특목고 등에 진학한 표본이 매우 적다. 1차년도 중학교 패널과 연결되는 2-4차년도 자료는 30개 남짓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4차년도에 특목고 표본을 추가로 표집하여 4차년도 이후에는 특목고 표본이 늘어났지만 중학교 자료와 연결되는 특목고 표본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분석에서 제외한다고 해서 표본 수의 큰 감소가 있는 것은 아니다.

특성화고를 포함할지 여부는 쟁점이 될 수 있다. 특성화고는 일반고와 교육과정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고 특목고 등과 마찬가지로 전기 전형을 통해 선발된다. 이런 점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첫째, 특성화고의 대학 진학률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특성화고가 대학 진학의 통로로 볼 수 있다는 점과 둘째, 특목고 등은 매우 학업성적이 높은 이들을 위한 학교이지만 특성화고는 중위권 내외의 학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반고와 유사한 측면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특성화고를 제외하고 분석한다.

## 2. 분석 모형

학교선택의 제도 설계가 학교 분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의 유형을 진학률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 학부모가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주된 이유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진학률이 높은 학교에 배정되는 학생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는 학교선택의 제도 설계

에 따라 영향을 받으므로 학교 유형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모형이 연구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적절한 모형이다.

배정되는 고등학교의 특성이  $y^*$ 이고  $x_1, x_2, x_3$ 은 학교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가정 변인, 학생 변인, 기타 변인을 의미하며  $z$ 는 학교선택 제도 변인이다. 설명변수는 중3 시점에서 측정가능한 변수들이며 실제 고등학교의 특성은 원하는 고등학교에 합격하거나 배정됨에 따라 결정된다.

$$y^* = \beta'x + \epsilon$$

$$\text{단, } \beta'x = \beta_1x_1 + \beta_2x_2 + \beta_3x_3 + \alpha_1z$$

학교의 특성이 연속변수로 관측가능할 경우에는 선형회귀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할 수 있고 학교의 특성이 이산적 변수로 존재하면 로짓회귀모형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배정된 고등학교의 특성은 서울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에 얼마나 많은 비율의 재학생들이 입학하는지로 측정하였으며 이 값은 4차년도 자료이다. 서울소재 대학 진학률을 상중하 그룹으로 구분하여 로짓모형을 이용해 분석하였으며 상위는 졸업자의 20% 이상이 서울 소재 대학으로 간 경우이며 하위는 서울 소재 대학으로 간 비율이 5% 이하인 경우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항로짓 분석을 사용하는데 상위와 중하위의 구분을 주로 사용하며 필요할 때는 하위와 상중위를 구분하여 차이를 비교하였다.

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설명변수로 중학교 내신 성적 변수, 가구 로그 소득 변수 그리고 거주지의 사회경제적 수준 변수를 포함시켰다. 내신 성적 변수는 중학교 내에서의 전교석차 백분율을 고교 내신 등급과 같은 간격으로 9등급으로 구분한 뒤 다시 상위 3등급, 중위 3등급, 하위 3등급을 나누어 구성하였다. 거주지의 사회경제적 수준 변수는 1차년도 중학교 자료에서 교무담당이 응답한 학부모의 경제적 상태 변수를 수정하여 포함시켰다. (1) 매우 나쁘다에서 (5) 매우 좋다까지 응답한 것 중에서 (1)과 (2)의 값일 때 하위 사회경제적 지역 더미 1의 값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0으로 부여했다. 중학교 학군은 상대적으로 좁은 지역을 포괄하고 있어서 같은 광역시나 도지역 내에서도 상당히 상이한 수준차이를 나타낸다.

비평준화 제도에 따라 학생이 배정되는 경우에는 내신 성적은 진학률 상위 학교 배

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것이다. 이에 비해 엄격한 의미의 평준화 제도에 따라 추첨에 의해 강제 배정할 경우 중학교 내신 성적은 진학을 상위 학교에 배정되는 확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평준화 제도는 선지망 후배정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선지망은 학생들이 희망하는 학교를 몇 개 써내도록 하며 이를 감안하여 지망을 감안하여 추첨하도록 되어 있다. 선지망의 요소와 내신 등급의 고려에 의해 진학을 상위 학교에는 상대적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시도별 학생 배정 방식은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다양하므로 이를 하나의 지수로 요약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학생이 지망을 하고 이를 감안하여 배정하는 비율을 담고 있다. 이 비율을 100에서 빼면 지망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위로 배정하는 비율이 된다. 예를 들어 2009년 서울의 경우 60%가 지망을 고려한 배정비율이고 부산은 60%, 대구는 40%, 인천의 경우 100%, 광주 40%, 대전은 60%, 울산은 40%이다. 교육고용패널의 중3 코호트가 지망을 하는 시점은 2005년이지만 서울을 제외하면 제도의 변화는 거의 없다. 다만 서울의 경우 2009년 고교선택제 도입 이전에는 무작위 배정이 학군별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지망에 따른 배정은 0%로 계산하였다. 학생 지망에 따른 배정 비율이 많이 반영될수록 학교 선택제의 효과는 커진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 비율을 학교선택 강도의 대리변수로 사용한다.<sup>6)</sup>

학교선택제 변수를 포함시킬 경우 단순히 하나의 변수로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업성적과의 상호작용항, 소득과의 상호작용항, 그리고 중학교 사회경제적 수준과의 상호작용항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이럴 경우 선택효과가 큰 곳에서 학업성적에 따른 학교 분리 현상이 심화되는지, 소득에 따른 학교 분리 현상이 심화되는지,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학교 분리 현상이 심화되는지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6) 학교선택의 강도는 학생 지망에 따른 배정 비율 이외에도 학군 내 학교 수, 우선지망순위의 배정 여부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자료 수집의 한계로 인해 다양한 학교선택 강도 변수를 구성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보다 정밀한 학교선택 강도의 측정은 중요한 과제이다.

## V. 분석 결과

### 1. 기초통계분석

평준화지역 일반고 배정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기초통계량은 <표 2>의 (1)열과 같다. 비평준화지역 일반고 배정의 기초통계량은 <표 2>의 (2)열과 같다. 추가적으로 변수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면 이동 더미는 교육적 목적으로 중학교 때 거주지를 이동한 적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변수이다. 엄마 대졸 더미와 엄마 석사이상 더미는 학생의 엄마의 교육수준을 보여주며 교육정책 관심은 부모의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도를 5점 척도로 표현한 것이며 기대교육수준은 석사 이상의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1로 배정한 더미변수이다. 유년기 책읽어주기 변수는 한번도 읽어준 적이 없다부터 매일 읽어 주었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된 것이다. 수도권 더미는 서울과 인천에 대한 더미이며 도지역 더미는 광역시가 아닌 지역을 의미한다. 비평준화지역으로부터의 이동 변수는 평준화 고등학교로 비평준화지역에서 이동하는 이들을 측정하는 더미 변수이다. 자기주도학습시간과 사교육시간 그리고 사교육 비용은 모두 중학교 3학년 시점에서의 그것을 측정하고 있다.

두 지역의 학생 특성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 차이가 두드러지는 변수는 우선 대도시에서 비평준화제도가 시행되는 경우가 없다는 점에서 지역 관련 변수의 차이가 확인되며 둘째, 모의 학력 수준에 차이가 존재하며 셋째, 사교육시간과 사교육 비용에서 차이가 확인된다.

<표 2> 기초통계량 1 : 평준화 고등학교와 비평준화 고등학교

|              | 평준화 고등학교 |       | 비평준화 고등학교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진학을 상위 학교 더미 | 0.234    | 0.424 | 0.256     | 0.438 |
| 이동 더미        | 0.129    | 0.336 | 0.113     | 0.318 |
| 상위 성적 더미     | 0.274    | 0.446 | 0.261     | 0.440 |
| 하위 성적 더미     | 0.057    | 0.232 | 0.088     | 0.284 |

|                | 평준화 고등학교 |        | 비평준화 고등학교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로그균등화된 가구소득    | 4.911    | 0.552  | 4.795     | 0.546  |
| 하위 사회경제적 지역 더미 | 0.498    | 0.500  | 0.445     | 0.498  |
| 엄마 대졸 더미       | 0.654    | 0.476  | 0.681     | 0.467  |
| 엄마 석사이상 더미     | 0.140    | 0.347  | 0.076     | 0.265  |
| 교육정책 관심        | 3.726    | 0.982  | 3.571     | 0.924  |
| 기대교육수준         | 0.324    | 0.468  | 0.269     | 0.444  |
| 유년기 책읽어주기      | 3.097    | 0.920  | 2.945     | 0.843  |
| 수도권 더미         | 0.311    | 0.463  | 0.004     | 0.065  |
| 도지역더미          | 0.392    | 0.488  | 0.987     | 0.112  |
| 비평준화지역으로부터의 이동 | 0.202    | 0.401  | 0.962     | 0.191  |
| 자기주도학습시간       | 1.952    | 1.380  | 1.853     | 1.302  |
| 사교육 시간         | 4.784    | 13.039 | 2.563     | 12.373 |
| 사교육 비용         | 44.979   | 37.395 | 35.223    | 27.702 |
| 표본 수           | 858      |        | 238       |        |

자료 : 교육고용패널 1차~4차 원자료

어떤 학교 배정 및 선택제도를 갖느냐에 따라 진학을 상위 학교와 중하위 학교 사이에서 학생들의 특성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표 3>에서 t 검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선 평준화 고등학교의 경우 중학교 학업 성적에서 진학을 상위 학교와 중하위 학교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평준화 지역의 경우 진학을 상위 학교에 중학교 상위 성적자의 비율은 29%이고 진학을 중하위학교에는 26%로서 그 차이는 유의하지 않다. 중학교 하위 성적자의 비율 역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다. 평준화 고등학교는 학업성적에 따른 학교 분리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비해 비평준화 고등학교는 진학을 상위학교와 중하위학교 사이에 성적의 차이가 확연히 나타난다.

가구소득의 경우 평준화 지역에서는 진학을 상위학교에 중하위학교에 비해 부유한 가구의 자녀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하지만 비평준화지역에서는 부유한 가구의 자녀 비중에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다. 평준화 고등학교와 비평준화 고등학교 모두에서 진학을 상위 학교에서 하위 사회경제적지역 학생들의 비중이 유의하게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진학을 상위학교와 중하위학교의 학생 특성 비교

|                   | 평준화 고등학교           |                     |             | 비평준화 고등학교          |                     |             |
|-------------------|--------------------|---------------------|-------------|--------------------|---------------------|-------------|
|                   | 진학을<br>상위학교<br>(a) | 진학을<br>중하위<br>학교(b) | 차이<br>(b-a) | 진학을<br>상위학교<br>(a) | 진학을<br>중하위<br>학교(b) | 차이<br>(b-a) |
| 상위 성적자 비중         | 0.2985             | 0.2664              | -0.0321     | 0.5574             | 0.1582              | -0.3992***  |
| 하위 성적자 비중         | 0.0597             | 0.0563              | -0.0033     | 0.0328             | 0.1073              | 0.0746*     |
| 평균이상 소득가구<br>비중   | 0.6617             | 0.5297              | -0.1320***  | 0.4918             | 0.4350              | -0.0568     |
| 하위 사회경제적<br>지역 비중 | 0.3532             | 0.5419              | 0.1886***   | 0.2295             | 0.5198              | 0.2903***   |

자료 : 교육고용패널 1차-4차 원자료

주 : \* p<0.10 \*\* p<0.05 \*\*\* p<0.01

<표 4>는 평준화 지역 내에서 학교 선택의 강도가 학교 분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의 기초통계량이다. 이때 학교 선택의 강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여 높은 강도와 낮은 강도 광역시를 구분하고 이러한 구분이 성적과 가구소득 그리고 거주지의 특성과 상호작용하여 진학을 상위 학교에 배정될 확률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본 결과가 <표 5>에 요약되어 있다.

상호작용 효과는 이중차분법에 기초하여 유의성을 검증했다. 첫 번째 열의 경우 중학교 내신 성적에 따라 상위자와 중하위자를 구분할 수 있고 학교 선택의 강도에 따라 지역을 구분할 수 있다. 학교선택의 강도가 낮은 지역에서 상위성적자가 진학 우수 고교에 배정될 확률은 19.8%이고 중하위성적자가 진학 우수 고교에 배정될 확률은 21.9%로서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학생의 학교 선택이 상대적으로 더 보장되는 지역에서는 상위성적자의 진학 우수 고교 배정 확률은 50%로서 같은 수준의 성적자가 학교선택 강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전될 경우 진학우수 고교로 배정될 확률이 30.2%p 증가한다. 중하위성적자의 경우 학교 선택 강도가 높은 지역이었다면 이전보다 15.9%p 진학 우수 고교로 배정될 확률이 증가한다. 액면 그대로의 숫자에서 차이의 차이를 보면 14.3%p 수준으로 학교 선택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은 진학 우수 고교 배정의 측면에서 상위 성적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통계적 유의도는 10% 유의수준을 만족하지 않는다.

&lt;표 4&gt; 기초통계 비교 : 광역시 한정

| 변수             | 평균     | 표준편차   | 최솟값   | 최댓값   |
|----------------|--------|--------|-------|-------|
| 진학을 상위 학교 더미   | 0.238  | 0.426  | 0     | 1     |
| 진학을 하위 학교 더미   | 0.394  | 0.489  | 0     | 1     |
| 이동 더미          | 0.157  | 0.364  | 0     | 1     |
| 상위 성적 더미       | 0.274  | 0.446  | 0     | 1     |
| 하위 성적 더미       | 0.073  | 0.260  | 0     | 1     |
| 로그근대화된 가구소득    | 4.974  | 0.541  | 2.708 | 6.620 |
| 하위 사회경제적 지역 더미 | 0.504  | 0.500  | 0     | 1     |
| 엄마 대졸 더미       | 0.669  | 0.471  | 0     | 1     |
| 엄마 석사이상 더미     | 0.159  | 0.366  | 0     | 1     |
| 교육정책 관심        | 3.749  | 0.997  | 1     | 5     |
| 기대교육수준         | 0.354  | 0.479  | 0     | 1     |
| 유년기 책읽어주기      | 3.172  | 0.901  | 1     | 5     |
| 자기주도학습시간       | 1.969  | 1.404  | 1     | 8     |
| 사교육 시간         | 5.151  | 12.627 | 0     | 63    |
| 사교육 비용         | 50.054 | 41.019 | 0     | 300   |
| 수도권 더미         | 0.511  | 0.500  | 0     | 1     |
| 학교선택 강도        | 0.365  | 0.338  | 0     | 1     |
| 표본 수           | 522    |        |       |       |

자료 : 교육고용패널 1차~4차 원자료

가구소득 고저와 학교선택 강도의 고저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평균이상 소득가구 학생이 학교선택 강도의 상승으로 진학 우수 고교로 배정될 확률의 증가가 평균이하 소득가구 학생의 확률의 증가에 비해 7.3%p 더 크다. 하지만 10% 유의수준에서 두 확률의 증가분이 같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거주지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학교선택의 강도의 상호작용을 비교해보면 하위사회 경제적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선택의 강도가 높아질 경우 29.5%p 진학 우수 고교로 배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중상위 사회경제적 지역에 있는 경우는 학교 선택의 강도가 낮은 경우에도 이미 하위 사회경제적 지역 거주 학생에 비해 진학 우수 고교로 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학교 선택 강도가 높아질 경우 진학 우수 고교로 배정될 확률이 6.1%p 상승하는 것에 그친다. 결과적으로 차이의 차이는 23.4%p에 이르며 1% 유의수준에서 그 차이의 차이는 유의하다.

이상의 분석은 진학을 상위 학교로의 배정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통제하지 않고 성적, 가구소득 그리고 거주지 중심으로 학교 선택 제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하 두 개의 소절에서는 다양한 통제변수를 포함시킨 회귀분석에서도 본 소절에서 확인된 결과들이 유의하게 성립하는지를 검토한다.

<표 5> 진학을 상위 학교로의 배정 확률의 비교

|                   | (1) 성적 |         | (2) 가구소득  |           | (3) 거주지     |              |
|-------------------|--------|---------|-----------|-----------|-------------|--------------|
|                   | 상위 성적자 | 중하위 성적자 | 평균이상 소득가구 | 평균이하 소득가구 | 하위 사회경제적 지역 | 중상위 사회경제적 지역 |
| 낮은 학교선택 강도 지역(A)  | 0.198  | 0.219   | 0.244     | 0.165     | 0.145       | 0.272        |
| 높은 학교 선택 강도 지역(B) | 0.500  | 0.378   | 0.485     | 0.333     | 0.440       | 0.333        |
| 차이(B-A)           | 0.302  | 0.159   | 0.241     | 0.168     | 0.295       | 0.061        |
| 차이의 차이            | 0.143  |         | 0.073     |           | 0.234***    |              |

자료 : 교육고용패널 1차~4차 원자료

주 : \* p<0.10 \*\* p<0.05 \*\*\* p<0.01

## 2. 회귀분석 결과

### 가. 평준화와 비평준화의 학교 분리 요인 비교

학교 배정 결과에 개인적, 지역적, 제도적 요인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자. 본 연구에서 주된 관심은 제도적 요인들의 차이와 거주지의 영향력이 진학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교 배정에 어떻게 연관되는지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거주지의 사회경제적 수준 변수를 투입하였으며 앞서 살펴본 바 비평준화 지역으로부터의 유입 효과도 살펴보았다. 또한 학생의 학업성적 및 사교육과 자기주도적 학습의 영향력이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았다.

<표 6>은 진학을 상위 학교에 배정될 확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이항로짓모형으로 추정한 결과이다. 첫 번째 열은 평준화 고등학교에 대한 진학 결과를 보여준다. 우선 평준화 제도의 특성에 따라 중학교 내신 성적에 따른 차별적 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거주지역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진학을 상위 학교에

배정되는데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거주 지역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우 진학을 상위 학교로의 배정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것은 평준화된 지역일지라도 상대적으로 좋은 학군이 존재하며 이를 경유해서 학교에서의 계층간 분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가구소득의 영향력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거주지 선택에 의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적 목적에 의한 거주지 이동은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는데 이러한 결과는 거주지 이동이 중학교 이전인 초등학교 고학년 때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비평준화 지역으로부터의 이동 더미의 변수는 유의한 음의 값을 가져서 비평준화 지역에서 유입되는 학생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진학을 상위 학교에 배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우선 배정 결과 측면에서 거주지역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좋은 학군 배정의 연관성이 존재하므로 평준화 지역 외부로부터의 유입자는 좋은 학군에 배정될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제도적 맥락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선지망 후배정의 규칙 중에서 비평준화지역 학생들이 1단계에서 2단계를 거치지 않고 3단계로 배정되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6> 진학을 상위 학교로의 배정 : 이항로짓모형

| 변수             | 평준화 고등학교  |       |        | 비평준화 고등학교 |       |       |
|----------------|-----------|-------|--------|-----------|-------|-------|
|                | 계수값       | 표준오차  | 승수비    | 계수값       | 표준오차  | 승수비   |
| 이동 더미          | -0.282    | 0.261 | 0.754  | 1.229**   | 0.561 | 3.417 |
| 상위 성적 더미       | 0.183     | 0.207 | 1.201  | 2.038***  | 0.421 | 7.679 |
| 하위 성적 더미       | -0.026    | 0.380 | 0.975  | -0.568    | 0.826 | 0.566 |
| 엄마 대졸 더미       | -0.081    | 0.261 | 0.922  | -0.709    | 0.486 | 0.492 |
| 엄마 석사이상 더미     | 0.210     | 0.358 | 1.233  | -0.952    | 0.850 | 0.386 |
| 로그균등화된 가구소득    | 0.372     | 0.208 | 1.451  | 0.053     | 0.410 | 1.055 |
| 하위 사회경제적 지역 더미 | -0.608*** | 0.195 | 0.545  | -1.578*** | 0.414 | 0.206 |
| 교육정책 관심        | 0.076     | 0.096 | 1.079  | 0.254     | 0.217 | 1.289 |
| 기대교육수준         | -0.059    | 0.205 | 0.943  | 0.693     | 0.432 | 2.000 |
| 유년기 책읽어주기      | 0.040     | 0.103 | 1.040  | -0.137    | 0.232 | 0.872 |
| 수도권 더미         | 2.316***  | 0.300 | 10.138 |           |       |       |
| 도지역 더미         | 2.094***  | 0.310 | 8.114  | -0.379    | 1.937 | 0.685 |

| 변수                 | 평준화 고등학교  |       |       | 비평준화 고등학교 |       |       |
|--------------------|-----------|-------|-------|-----------|-------|-------|
|                    | 계수값       | 표준오차  | 승수비   | 계수값       | 표준오차  | 승수비   |
| 비평준화지역<br>으로부터의 이동 | -1.489*** | 0.313 | 0.226 | -0.273    | 1.232 | 0.761 |
| 자기주도학습시간           | 0.116*    | 0.065 | 1.123 | 0.132     | 0.125 | 1.141 |
| 사교육 시간             | 0.001     | 0.008 | 1.001 | 0.034**   | 0.017 | 1.035 |
| 사교육 비용             | -0.002    | 0.003 | 0.998 | 0.001     | 0.009 | 1.001 |
| 표본 수               | 858       | 0.003 | 0.998 | 238       |       |       |
| 우도비율               | 158***    |       |       | 74***     |       |       |

자료 : 교육고용패널 1차~4차 원자료

주 : \*  $p < 0.10$  \*\*  $p < 0.05$  \*\*\*  $p < 0.01$

〈표 6〉의 두 번째 열은 비평준화 지역의 학생 배정 영향 요인을 보여준다. 학업 성적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되는 비평준화 지역 고등학교의 특성에 의해 평준화 지역의 학교 배정과 상이한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진학을 상위 학교에 대한 배정에 중학교 학업성적 상위자들이 높은 확률로 배정된다. 이는 평준화 지역에서 학업성적이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과 대조된다.

둘째, 비평준화 지역에서도 지역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배정 영향 요인은 존재한다. 사회경제적 수준 하위 지역의 중학교를 다녔을 경우 진학률이 좋은 학교에 배정될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거주 지역의 영향 요인은 평준화 지역에 비해 훨씬 크다는 점에서 비평준화 지역에서 거주지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예상은 사실에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학생의 학습과정 변인에서 사교육은 비평준화 지역의 진학을 우수 학교 배정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은 평준화 지역에서 자기주도 학습시간이 진학을 우수 학교 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동 더미는 교육적 목적의 주거지 이동을 중학교에서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변수인데 평준화지역에서는 그 효과가 유의하지 않지만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그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 나. 학교 선택 강도의 차이와 학교 분리

앞 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평준화 제도는 단순히 무작위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내에 학생의 학교 선택 기제가 포함되어 있고 학교 선택의 수준을 얼마나 허용할 것인가에 있어서 광역시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가 어떤 영향을 주는 지 검토하기 위해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학교선택 강도라는 새로운 변수를 지역별로 구성하였다. 학교선택강도가 학업성적, 소득 그리고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 세 가지 변수와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학교선택강도 변수와 세가지 변수를 곱한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분석 자료는 평균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표본 수가 충분히 확보되는 광역시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진학을 상위 학교 배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상위성적더미와 학교선택제의 상호작용항이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다. 이것은 해당 지역의 학교 배정 방식에서 자신이 지망한 학교의 배정 비중이 높아질수록 상위 성적자가 진학을 상위 학교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말해준다. 앞선 <표 4>의 분석에서는 평준화 지역에서 고등학교 배정에 있어서 학업성적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학교선택제의 지역간 차이를 고려하면 지망 배정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학업성적 상위자가 진학을 상위 학교에 배정되는 확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중학교 소재지가 사회경제적으로 하위일수록 진학을 상위 학교에 배정될 가능성이 낮은 것은 앞선 분석과 일치하다. 추가적으로 하위 지역과 학교선택제의 상호작용항의 계수값은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학교선택제를 통해서 학생의 지망에 따른 배정이 커질 경우 하위 지역에서 받던 진학을 상위 학교 배정 확률의 불이익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이상의 두가지 결과는 학교 선택제의 영향이 진학을 상위 학교에서의 학교 분리에 미치는 영향이 단순하지 않고 복잡한 이중적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첫째로 학교 선택이 강화될수록 학업성적 우수자들이 진학을 상위 학교에 더 많이 배정되는 학업성적에 따른 학교 분리가 심화된다. 둘째로 학교 선택이 강화될수록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진학을 상위 학교에 배정되는 확률이 높아져서 거주 지역에 따른 학교 분리가 완화된다.

<표 7> 학교 선택 강도의 영향 : 이항로짓모형

| 변수             | (1) 진학을 상위 학교 |        | (2) 진학을 하위 학교 |        |
|----------------|---------------|--------|---------------|--------|
|                | 계수값           | 표준오차   | 계수값           | 표준오차   |
| 상수항            | -3.486**      | 0.011  | 0.258         | 0.814  |
| 이동 더미          | -0.302        | 0.343  | 0.215         | 0.425  |
| 상위 성적 더미       | -0.341        | 0.348  | 0.249         | 0.453  |
| 하위 성적 더미       | -0.111        | 0.817  | 0.168         | 0.702  |
| 상위 성적*학교선택제    | 1.113*        | 0.096  | -0.712        | 0.319  |
| 하위 성적*학교선택제    | 0.511         | 0.684  | -1.753        | 0.231  |
| 로그균등화된 가구소득    | 0.182         | 0.497  | 0.021         | 0.923  |
| 가구소득*학교선택제     | -0.196        | 0.169  | -0.575***     | <.0001 |
| 하위 사회경제적 지역 더미 | -0.835***     | 0.008  | 0.290         | 0.315  |
| 하위 지역*학교선택제    | 1.542**       | 0.034  | 1.451**       | 0.036  |
| 엄마 대졸 더미       | -0.210        | 0.551  | 0.141         | 0.605  |
| 엄마 석사이상 더미     | 0.177         | 0.709  | -0.002        | 0.996  |
| 교육정책 관심        | -0.090        | 0.463  | 0.119         | 0.236  |
| 기대교육수준         | 0.037         | 0.890  | 0.075         | 0.734  |
| 유년기 책읽어주기      | 0.186         | 0.189  | -0.018        | 0.875  |
| 자기주도학습시간       | 0.104         | 0.233  | -0.216***     | 0.006  |
| 사교육 시간         | -0.001        | 0.906  | -0.001        | 0.947  |
| 사교육 비용         | 0.001         | 0.734  | -0.001        | 0.782  |
| 수도권 더미         | 2.070***      | <.0001 | -0.709***     | 0.008  |
| 표본 수           | 522           | 0.003  | 522           |        |
| 우도비율           | 115***        |        | 58***         |        |

자료 : 교육고용패널 1차~4차 원자료

주 : \* p<0.10 \*\* p<0.05 \*\*\* p<0.01

진학을 하위 학교로의 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두 번째 열에 제시되어 있다. 진학을 하위 학교 배정에 중학교 학업성적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사회경제적 수준이 하위인 지역과 학교선택강도의 상호작용항은 양의 값을 갖는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위지역에 사는 학생의 경우 학교선택이 강화될수록 하위 학교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학교 선택이 강화되면 하위 지역 거주 학생의 상위 학교 배정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결과를 종합하면 하위 지역 거주 학생의 중위 학교 배정 가능성이 줄어들고 양극화 현상이 나타남을 말해준다.

가구소득과 학교선택제의 상호작용항은 유의한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가구소득 증가가 진학을 하위학교 배정 확률에 미치는 영향이 학생 지망에 따른 배정이 커질수록 감소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학생 지망에 따른 배정이 극대화된 곳에서는 가구소득이 낮은 가구의 하위학교 배정 가능성이 극대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 선택제의 강화가 진학을 하위 학교에서의 학교 분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해 보면 첫째, 학교 선택의 강화가 학업성적에 따른 학교 분리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둘째, 학교 선택이 강화될수록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지역에 사는 학생들과 소득이 낮은 가구의 학생들이 진학을 하위 학교에 배정되는 확률이 높아지고 상위 및 중위 학교에 배정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기존 연구에서 김정숙 외(2010), 위권일 외(2011)의 연구는 학교선택제가 계층에 따른 학교 분리를 강화할 것으로 예측한 반면 변수용 외(2012)에서는 학업성적에 따른 분리나 계층에 따른 분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모든 학업성적 구간에서 나타나지는 않지만 상위 성적자들이 진학을 상위학교로 몰리는 현상은 나타난다는 점에서 부분적인 학교 분리가 강화되고 소득에 따른 학교 분리는 진학을 하위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거주지에 따른 분리는 일면 완화되면서 일면 강화되는 현상이 확인된다.

## VI. 결 론

본 연구는 거주지의 사회경제적 분리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고등학교 학생 배정 제도가 학업성적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른 학생들 간의 학교 분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교육고용패널 1차년도부터 4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교육고용패널 1차년도의 중학교 코호트 자료에는 평준화 지역 여부 및 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볼 수 있는 변수가 있고 이들 학생들이 여러 고등학교에 배정되는 것을 패널자료의 특성을 활용해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분석을 하기에 적절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준화 지역은 학생 학업성적에 따른 진학을 수준별 학교배정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 비평준화 지역에서 학업성적에 따른 진학을 수준별 학교배정이 뚜렷이 나타나는 것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거주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의 영향력은 여전히 평준화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거주지의 다양한 교육적 효과와 더불어 진학을 상위 고등학교의 불균등한 지역적 분포 및 학교선택제의 부분적 도입 등에 따른 복합적 영향으로 판단된다.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학업성적에 따른 학교 분리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동시에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지역에서 진학을 상위 학교 배정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비평준화 지역에도 주거지 분리 효과가 상당히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둘째, 학교선택제는 광역시별로 선택권의 보장 정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것은 학생들의 진학을 상하위 학교 배정 분포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생의 지망을 반영한 배정 비중을 강화할수록 학업성적 상위자가 진학을 상위 학교에 배정될 확률이 높아져서, 평준화 제도 내에서도 비평준화와 유사한 학업성적에 따른 학교 분리가 학교선택제가 강화될수록 나타난다.

하위 계층이 모여 사는 지역 학생들의 진학을 상위 학교 배정의 경우 선지망 배정을 강화하게 되면 하위 지역 학생들의 기회가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가 관측된다. 하지만 선지망 배정의 강화는 하위 지역 학생의 진학을 하위 학교 배정도 늘리는 효과를 가져 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지역의 학생에 있어서 학교선택의 강화가 중위 학교 배정의 비중을 줄이고 양쪽이 늘어나는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선지망 배정의 강화는 저소득가구 중학생의 진학을 하위 고등학교 배정을 강화하고 고소득가구 중학생의 진학을 하위 고등학교 배정을 줄이는 효과를 낳는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2005년을 전후로 한 시기의 일반고등학교 배정 자료를 사용했다. 2010년 실시된 자율형 사립고 정책이 시행되기 전이기에 자율형 사립고로 인한 학교 배정의 변화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한편으로 최근의 제도변화가 미친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점은 본 연구의 약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평준화제도 내의 학교선택 강도의 차이가 미치는 효과를 순수하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장점이 되기도 한다. 자율형 사립고 효과가 학교선택제와 상호작용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추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학교선택제 특히 고교선택제와 관련된 논쟁은 한 측면에서 학교 분리로 대표되는 양극화의 문제를 다루지만 다른 한 측면에서는 선택에 따른 경쟁 압력을 통해 학교 교육역

량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본 연구는 전자의 측면을 주로 살펴본 것이라 할 수 있다. 후자의 측면에 대한 증거에 기반한 객관적 평가 없이는 학교선택제에 대한 온전한 평가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학교선택제 강화에 의한 학교 교육역량을 실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의 구축과 분석 방법의 개발이 정책적으로 요구된다.

## 참 고 문 헌

- 강창희·채창균(2010). 「대입수학능력시험 성적 자료를 이용한 학급 내 동료 효과의 분석」, 『노동경제논집』, 제33권 제1호, 한국노동경제학회.
- 강태중(2007). 「학업성취도의 지역 차이 분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경근 외(2005). 「자녀교육을 위해 주거지 이동을 선택한 가족의 특성」, 『한국교육학연구』, 제11권 제2호, 65~87쪽, 안암교육학회.
- 김광혁(2008). 「지역사회자본과 가족 소득의 변화가 아동의 학업성취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제35호, 5~28쪽,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김성식(2009).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현황과 실태, 평준화 해체의 실상과 위기 심포지움 자료집』.
- 김정숙·백병부(2010). 「중3 학부모의 고등학교 선택 동기 결정요인」, 『한국교육』, 제37권 제3호, 5~27쪽, 한국교육개발원.
- 김학한(2011). 「학교선택제와 고교서열체제의 등장」, 『교육비평』, 제30호, 105~122쪽, 교육비평.
- 김희운·백학영(2010).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동네효과 분석」, 『사회복지정책』, 제37권 제3호, 53~84쪽,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백병부·황여정·성열관(2012). 「고교선택제가 배정결과만족도 및 학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제22권 제4호, 141~170쪽, 한국교육사회학회.
- 변수용·주영호(2012). 「학교선택 결정요인과 효과 분석 : 서울교육종단연구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국교육』, 제39권 제1호, 한국교육개발원.
- 오성배(2004). 「지역간 학업성취도 격차 원인 분석 : 지역 효과와 학생이동의 영향 탐색」, 『한국교육』 제31권 제2호, 한국교육개발원.
- 위권일 외(2011). 「서울시 후기 고등학교 학교 배정 방법 개편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교육청.
- 윤형호·강민정(2008). 「서울시 자치구별 상위학교 진학률에 대한 거주지 효과 분석」, 『서울도시연구』 제9권 제4호.

- 이성호(2012). 『School Choice : Issues and Lessons of the U.S.』, 『한국교육문제연구』, 제30권 제4호, 한국교육문제연구소.
- 이주경(2002). 『고교평준화 정책의 경제학 : 주거지 선택과 서열화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분석』, 제8권 제3호, 106~142쪽
- 정광호(2010). 『미국 교육바우처의 효과 분석: 무작위실험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48권 제2호, 25~64쪽,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최은영(2004). 『거주 집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공교육 환경의 차별화 : 강남구와 광진구의 사례로』, 『도시연구』, 9호.
- Epple, D and R. Romano(1998), "Competition between private and public schools, vouchers and peer effects", *American Economic Review* 88, pp.33~62

---

Abstract

---

The Effect of School Choice on School Segregation by Academic Performance and Social and Economic Status

Hyewon Kim

This article examines the effect of school choice and residential choice on schools' mix and academic performance using the Korea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KEEP). The results are as follows: In regions under implementation of the high school standardization policy, schools were not segregated by academic performance. However, school segregation by regional, social and economic status (SES), and household income persisted in regions under the high school standardization policy. In contrast, school segregation by academic performance and by regional SES in regions under the high school non-standardization policy was higher than in regions under the high school standardization policy. When the school choice system was reinforced, school segregation was found by academic performance in the standardized regions: strengthening the school choice system had the positive effect of increasing the probability of good school assignment in regions under the non-standardization policy, but at the same time it had the negative effect of raising the probability of poor school assignment in residential areas with low SES and household income.

**Key word:** School Choice, School Segregation, Residential Segregation, High School Standardization Policy

